

지역 특산품이 '딱'...추석 선물에 부는 '신토불이' 바람

롯데백화점 광주점, 특산품 물량 30%↑·건강선물세트도 다양화 광주이마트, 특산물 매출 20%↑...나주 배·영광 굴비 30% 할인도

올 추석도 멀리서 마음을 전하는 비대면 명절이 예상되면서 대형 유통가가 선물세트 가짓수와 물량을 대폭 늘렸다.

광주·전남 대표 특산품들은 판매대 맨 앞에 진열되면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은 지역 농가가 모처럼 웃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7일부터 9월19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역 특산물 물량을 전년보다 30% 이상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호남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는 함평 한우와, 장수 한우, 장흥 표고, 담양 한과, 흑산도 홍어, 포곡 멧갈치 등이 있다.

올해는 상품 차별화를 위해 구매 담당자(바이어)가 직접 발품을 팔아 특산품 발굴에 나섰다. 순천만 가마솥 곶감 수제 누룽지와 화순 약선향기 약산, 산수유 칩진엑스틱 등이 산지에서 바로 공수된다. 지역 특산물 선물세트는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 추석에는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농산, 수산, 건강, 주류, 실속세트 등 총 700여 종을 마련했다.

올해 설에 호응을 얻었던 정육과 청과 물품은 20% 확충했다. 정육과 청과 상품 중에서도 국내 한정 생산되는 희귀 품목이나 전국의 명인 또는 명촌

과 협업한 상품을 다수 선보인다.

명절 인기 선물인 건강선물세트도 MZ세대(20~30대)를 겨냥해 다양화했다. 기존 홍삼이나 비타민 외에 간편 건강식으로 최근 주목받는 '그레놀라·그릭요거트 세트' 등을 판매한다.

고가의 프리미엄 상품도 있다.

전 세계 참다랑어 어획량 중 0.4%를 차지하는 아이슬란드 자연산 참다랑어로 구성된 '북대서양 참다랑어 명품세트'를 100만원에 10세트 한정 판매한다.

연간 1만5000명만 생산하는 '페트루스 올드빈티지 컬렉션' 와인도 생산연도에 따라 한 병당 800만원에서 1100만원에 선보인다.

비대면 추세에 맞춰 롯데백화점은 오는 27일부터 9월15일까지 20일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한 '홈결재 선물하기'를 진행한다.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에서 결제부터 배송까지 처리할 수 있다. 선물 신청을

하면 매장에서 통화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할인·사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선물을 받는 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수령지 확인한 뒤 상품을 배송한다.

이마트는 광주·전남 지역 특산품 가짓수를 10개 늘렸다. 이마트는 오는 9월6일까지 한 달 동안 예약 판매를 벌인다.

광주 3개 이마트의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지역 특산물 세트 사전 예약판매 매출은 지난 설 같은 기간 대비 20.4% 증가했다.

대표적인 지역 신선식품 선물은 나주 전통배, 영광 참굴비, 완도 덕우도 전복, 신안 임자도 김세트 등이 있다.

이마트의 고당도를 보장하는 '시그니처 나주 전통배 세트'와 국산 천일염으로 밑간한 '특선 영광참굴비 2호'는 행사카드로 구매하면 30% 할인을 받아 5만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 '덕우도 활전복 1

호 세트'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 표고버섯 선물세트는 강진군 삼흥리 산자락에 있는 청림농원에서 생산된다.

이마트는 청림농원과 유기농산물인증 친환경 계약을 맺었다.

이마트 측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속되면서 선물 사전 예약과 택배 배송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지역 이마트의 설 명절 택배배송 매출 증가는 2019년 8.9%에서, 2020년 10.4%, 올해 18.7%로 늘고 있다.

김양호 이마트 광주점장은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을 마련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설에는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지역 특산물 세트가 인기를 끌었던 점을 반영해 다양한 지역 특산물 세트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남성의류 개편

지난 24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을 찾은 고객들이 새단장해 문을 연 2층 남성의류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월드컵점은 남성의류 26개 브랜드 가운데 17개 매장을 새로 꾸몄으며, 신규 입점한 '피렌하이트', '바소움', '리버클래시'는 오는 29일까지 할인·사은행사를 벌인다. <롯데쇼핑 제공>

농협 광주농산물유통센터, 외식업소 원가절감 앞장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와 업무협약

농협 광주농산물유통센터(광산구 신가동)는 지역 외식업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유통센터는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부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와 지역 외식업소 원가 절감에 힘쓰기로 했다. 농업인과 외식업소, 도시와 농촌, 농업과 환경을 연계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자재 매장을 운영하는 광주유통센터는 외식업소에 농산물과 가공식품, 포장용기 등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훈 광주유통센터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



기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외식업소의 식재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플라스틱 회수에 ASC인증 전복 판매 등 대형마트 친환경 행보

롯데마트 'ASC-COC' 취득...이마트 폐플라스틱 교통안전 반사판 등으로 재탄생

대형마트 업계가 친환경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최근 친환경 수산물 유통·관리 인증인 'ASC-COC'를 취득하고 이를 적용한 완도산 전복을 다음달부터 모든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ASC-COC 인증은 해당 업체가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속가능한 이력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 인증이 있어야 친환경 수산물인 'ASC'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완도지역 1200 여가가 출자해 설립한 완도전복수확회사와 손잡고 ASC 인증 전복을 생산한다.

ASC인증 전복 어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롯데마트는 지속 가능한 양식 활동을 통해 생산된 고품질의 전복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으로 롯데 측은 기대했다.

이번 판매를 위해 일정한 수온과 용존산소량이 유지되는 스마트수조와 위성적인 신선포장설비가 완도 산지에 설치됐다. 인증전복에 대한 이력추적 시스템도 구축했다.

롯데마트는 이를 시작으로 친환경 수산물 판매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 79개 점포에서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객들의 참여로 모인 폐플라스틱은 어린이

교통안전 반사판 2만1000개, 접이식 소풍카트 1만3500개, 쓰레기를 집는 '줍깅 집게' 3000개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지난달 19일부터는 이마트 인스타그램, SSG닷컴 앱과 코크 플레이 앱을 통해 투명 페 페트병 수거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박스 신청을 받았다. 수거된 박스는 검수를 거쳐 SSG닷컴과 한국 코카콜라가 페 페트병으로 제작한 '코카콜라 보냉가방'을 증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올해 하반기 3회에 걸쳐 회차별로 각 140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 이달 초 마감된 1회차는 1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거리두기 강화에 게임 인기...관련 용품 매출 급증

롯데온, 29일까지 반값 할인

CGV, 게임 결승전 생중계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게임 관련 산업은 불황을 모르는 모양새다.

롯데그룹 통합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은 지난달 게임기 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레이싱 휠, 조이스틱 등 게임 주변기기 매출은 378%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시행되면서 외부 활동이 줄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온은 이런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로지텍 브랜드 페스티벌'을 열어 게임용품을 최대 반값 할인한다.

롯데온과 로지텍의 비즈니스 파트너십(JBP) 체결 2주년을 기념한 행사로, 'G304 게이밍 마우스' 등 인기 상품을 특가로 선보인다.

CGV는 오는 28일 오후 5시 '2021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이하 '2021 LCK 서머') 결승전 경기를 광주터미널점 등 전국 30개 스크린X관에서 생중계한다. 정면 스크린에서 중계 화면을 관람하는 동시에 좌우 스크린에 송출되는 미니 맵과 스탯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다.

2021 LCK 서머 결승전 생중계 티켓가는 2만원이며, 생중계를 관람하는 모든 관객에게 응원봉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